“포스트 코로나시대 ‘연대와 협력’의 광주정신 필요”

‘아시아문화포럼’ 문화전당서 개최…‘문명의 전환’ 주제
세계적 석학 노엄 촘스키와의 사전 화상대담 공개 눈길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는 폭압에 맞서 연대와 협력을 도모했던 ‘광주정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기의 시대 인류 공동체가 사는 길이자 탐욕을 끊을 수 있는 대안이라는 의미다.

이 같은 주장은 2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국제회의실에서 ‘문명의 전환-뉴노멀시대 문화의 연대가능성’ 주제로 열린 2020년 아시아문화포럼에서 제기됐다. 아시아문화주간에 열린 이번 포럼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과 광주문화재단이 공동주관을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진행됐다.

주제세션 ‘인류세·위험사회·헤게모니’ 발표자로 참여한 김재인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는 ‘공동주의를 향해’라는 발표문에서 “인류는 지금 함께 사느냐 모두 죽느냐의 기로에 서있다”며 “따라서 함께 사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인류에겐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40년 두 개의 사건이 있었다고 전제한 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신군부세력에게 저항했던 오월 광주항쟁과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돼 전지구적으로 확산된 신자유주의 물결을 꼽았다.

김 교수는 “뉴노멀은 새로운 세상이 아니며 이상, 이변, 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를 일컫는다”며 “격차와 차별이 심화될수록 무엇을 어떻게 나누고 연대해야 하는지 공동주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10시부터 시작된 포럼 현장에는 세계적인 석학 노엄 촘스키와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와의 화상 인터뷰(지난 8월 녹화)가 상영됐다. 촘스키는 “지구온난화와 핵전쟁이 지구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특히 지구 형성부터 현재까지를 이르는 ‘홀로세’(Holocene) 이후 인류가 지구환경에 큰 영향을 준 시기를 일컫는 ‘인류세’(Anthropocene)의 가장 큰 문제는 멸종의 가속화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촘스키는 “서양 중심의 세계질서가 동양 중심으로 전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전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새 질서가 등장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상대담 이후 본격적으로 주제세션을 비롯한 의미있는 발표가 이어졌다.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는 ‘코로나19 사태와 사회경제 정책의 전환’이라는 발표에서 코로나 사태를 “자본주의 전체가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로 들어서게 되는 변곡점”이라고 전제한 뒤 국가의 새로운 역할을 주문했다. 유동성과 구매력의 배분, 일자리 창출에 있어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은 과감한 상상력과 대담한 행동이 필요한 순간이다. 그리고 각급 정부를 이끄는 국가 지도자들은 상상력과 행동의 과감성과 대담성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경운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는 로컬 도시들의 연대를 글로벌 거버넌스화하는 전면적 방식을 역설했다. 정 교수는 ‘도시에 관한 새로운 상상’이라는 발표문에서 “도시는 더욱더 작아져야 하며 그 안에서 일상과 밀착된 공유재를 만들어내야 하고, 그런 공유재는 다시 작은 도시들끼리의 연대와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순미 조선대 인문학연구원 교수는 ‘팬데믹 이후 재난인문학’이라는 글을 통해 “비대면 사회로 접어들면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회복, 돌봄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화두가 됐다”며 “비대면 사회에서 돌봄의 대상에는 차별받고 소외된 타인만이 아니라 고립된 개인들, 우리 모두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지역문화워크숍도 열려 지역 신진 연구자와 큐레이터, 작가들의 활동 등도 소개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020아시아문화포럼이 2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세계적 석학 노엄 촘스키와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사전 녹화 특별대담이 공개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농어촌 ‘기업도시’에 “2주택 중과세 특례 적용을”

전남도, 정부에 건의…솔라시도 주거단지 분양 차질 우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솔라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사업인 주택 분양이 정부의 부동산 과세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농어촌 지역 기업도시 주거단지의 경우 1가구 2주택 중과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전남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솔라시도(구성·삼호·삼포지구) 사업 지구 중 구성지구 주거단지 첫 분양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이뤄진다. 1만5983㎡ 규모의 구성지구는 주변 생태 자연과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블루시티 기반시설 구축을 추진 중이다. 국내 최대규모 태양광발전소(98MW)와 정원조성사업인 ‘썬가든’ 등이 현재 준공됐으며 내년 초 18홀 골프장이 문을 열 예정이다. 핵심사업인 주거단지는 골프장 주변에 40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500가구를 내년 상반기 분양 예정이다.

전남도는 2993억원을 투자해 기업도시 진입도로(연장 10.83km)를 건설 중이며, 내년 진입도로가 준공되면 솔라시도에서 서해안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까지 5분 이내 접근할 수 있다. 솔라시도 구성지구 조성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정부의 1가구 2주택 중과세 정책은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 수도권, 도시지역(용도지역), 허가구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지구들은 영암·해남의 농어촌 지역이나 마찬가지이지만 도시지역으로 포함돼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전남도와 구성지구 사업시행자는 구성지구 주거단지가 중과세 제외 혜택을 받지 못하면 주택 분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주거단지 분양이 차질을 빚으면 기업도시 조성사업 전체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성장촉진지역·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있는 영암·해남 기업도시 주택을 1가구 2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택 보급 활성화와 정주 인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법인택시기사에 긴급지원금 100만원 지급

전남도가 코로나19로 소득감소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기사들에 대해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으로 1인당 1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전년대비 매출(소득)이 감소한 택시회사에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입사해 10월 8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이며, 시·군 교통부서에 10월 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코로나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직접 지원대상인 운전기사에게 11월 13일까지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할 수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www.jeonnam.go.kr)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택시기사는 추석 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1인당 100만원이 지급한 바 있으며, 미신청자는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해당 시·군 주민센터 등 지정장소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전남도는 2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승객 감소로 고용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택시 및 시외버스 운전기사 7608명에게 37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국비 지원으로 개인 및 법인택시기사에게 66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5·18 영화 ‘황무지 5월의 고해’ 31년 만에 극장서 개봉

김태영 감독 단편 ‘칸트씨의 발표회’ 장편 ‘황무지’ 연작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영화 ‘황무지 5월의 고해’〈사진〉가 국가로부터 상영 불가 판정을 받은 지 31년 만에 관객과 만난다. 오는 28일 극장에서 개봉하는 ‘황무지 5월의 고해’는 김태영 감독의 단편 영화 ‘칸트씨의 발표회’(1987)와 장편 영화 ‘황무지’(1988)로 구성된 연작이다.

김 감독은 1987년 다양한 상징으로 아픔을 형상화한 16mm 단편영화 ‘칸트씨의 발표회’를 통해 80년 5월 광주를 이야기했다. 그는 이듬해 장편영화 ‘황무지’를 제작, 연출했지만 1989년 군 수사 정보기관인 보안사는 상영 불가 판정을 내렸고, 필름을 압수했다. 김 감독은 이를 광주에서 상영하려던 혐의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올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한국영상자료원의 기념사업이 추진되면서 김 감독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필름이 빛을 보게 됐다. 이후 전찬일 영화평론가가 개봉추진위원장으로 나서 개봉을 추진하면서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나게 됐다.

‘칸트씨의 발표회’는 시민군의 의문사를 다룬 최초의 단편영화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고문을 당하고 정신이상자가 된 청년 칸트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내뱉으며 서울을 떠도는 이야기다.

영화는 칸트라는 인물을 통해 광주항쟁에 참여해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젊은이들의 의문사를 고발한다.

이 영화는 한국 단편영화 최초로 1988년 베를린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됐으며, 이후 토리노 영화제, 하와이국제영화제 등에 초청됐으며, 런던한국영화주간 초청작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황무지’는 광주에 진압군으로 투입됐던 공수부대원의 양심선언을 다룬다. 한 공수부대원이 시민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한 소녀를 사살하고, 미군 기지촌에 숨어들어 살아가다 광주 망월동 묘지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분신자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 속 주인공 이름은 ‘김의기’다. 1980년 5월 30일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계엄군의 총칼에 침묵하던 서울시민들에게 광주의 비극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뿌리다 계엄군의 검색에 쫓겨 실족사 한 김의기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인용했다.

두 작품은 5·18을 배경으로 삼고 있지만 ‘칸트씨의 발표회’는 피해자, ‘황무지’는 가해자 입장에서 역사의 비극을 바라보고 있다.

김 감독은 “1980년 5월 서울역에 나갔는데 학생들이 전경한테 머리채를 붙잡혀 끌려다니고 차가 불타는 현장을 보고, 타오르는 분노를 영상으로 표출해야겠다고 생각해 영화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31년간 국가로부터 봉인됐던 영화가 부활하게 됐다. 많은 사람이 당시 역사를 봐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황무지 5월의 고해’는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BIFF)에서 관객이 직접 영화를 선정하는 커뮤니티 비프에 초청됐다. /전은재 기자 ej6621@

중앙신용

꼭! 받아야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
어르신 돌봄은행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자원봉사도 저축이 된다”

어르신 돌봄은행이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이를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만 65세 이후에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봉사자 모집
- 돌봄봉사자 자격 : 만13세이상, 2인 1조 활동 권고, 4시간 교육 필수(교육시간도 포인트 혜택)
- 돌봄봉사자 혜택
  - 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용(적립 및 사용)
  - 돌봄활동 시간 VMS 연계 적립
  - 돌봄포인트 적립 시 의무기부 20%
  - 적립한 포인트는 가족과 제3자에게 기부 가능
- 돌봄활동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안전관리 등
- 돌봄봉사자 기초관리교육 : 수시 모집

돌봄대상자는?
- 어르신 돌봄은행에 회원등록한 만65세이상의 어르신 중 전문가가 돌봄활동 제공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이거나, 만 40세 이후 본인이 적립한 돌봄포인트와 기부받은 포인트의 합계가 100포인트 이상인 어르신
- 돌봄서비스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 안전관리 등

CCC 동구노인종합복지관 www.noin.or.kr ☎062-232-4953

1688-3579
(전국 50개 시군구소재)

보건복지부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0-1758호

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및 재공고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안(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0. 21.

광 주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도로) 결정(변경) 입안 내용

■ 용도지역 변경

구분	공원명	변경 내용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용도지역	마륵근린공원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2,014.00	변경
	봉산근린공원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3,333.00	변경
	송암근린공원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07,000.00	변경
	운암산근린공원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0,210.86	변경
	일곡근린공원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62,790.00	변경
	중앙근린공원(2지구)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0,287.00	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

구분		변경내용	비고
송암근린공원	신 설	• 중로2-1호선 신설(B=18m, L=104) • 경관녹지 신설(A=8,153㎡) • 초등학교 신설(A=11,167㎡)	
일곡근린공원	신 설	• 경관녹지 신설(A=3,578㎡)	

■ 도시계획시설 결정(재공고,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0-1279호, 2020.7.8.)

구분		변경내용	비고
중외근린공원	신 설 (1개 노선)	• 소로1-A호선 신설(B=10m, L=608)	관련부서 협의의견 반영

2. 열람기간 : 2020. 10. 21. ~ 2020. 11. 4.(15일간)
3. 열람 및 의견서 제출
가. 마륵 · 중앙2(서구), 송암(남구), 운암산 · 일곡 · 중외(북구), 봉산(광산구)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062-613-4421)
- 광주광역시 남구청 도시계획과(☎ 062-607-3912)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도시계획과(☎ 062-960-8521)
- 광주광역시 서구청 도시계획과(☎ 062-360-7464)
- 광주광역시 북구청 도시재생과(☎ 062-410-6728)

4. 관계도면 : 계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산행안내

10월25일(일)

▲**광주자연보전답사회** 10월25일(일) 천태산(충북 영동), 염주체육관 06:20, 무등경기장 06:40, 동광주홈플러스 07:0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답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11월8일(일)

▲**광주자연보전답사회** 11월8일(일) 작은가야산(경남 합천), 염주체육관 06:40, 무등경기장 07:00, 동광주홈플러스 07:2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답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신현일(480318-XXXXXXX)
• 최후주소 : 광주 남구 이장길 32-9 (이장동)

피상속인 망 신현일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0느단1172호로 신청하여 2020년 10월 7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10월 21일

• 상속인 : 1. 신진화(750110-XXXXXXX)
광주 남구 서문대로 654번길 24, 201동 903호 (진월동, 삼익세라믹2차아파트)
2. 신진희(760813-XXXXXXX)
광주 북구 대천로 163-1(문흥동)
3. 신천식(780904-XXXXXXX)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43, 209호 (복대동, 신영지웰시티1차상업시설)
4. 신연희(811210-XXXXXXX)
광주 남구 서문대로654번길 24, 201동 201호 (진월동, 삼익세라믹2차아파트)
5. 신수환(830310-XXXXXXX)
광주 남구 서문대로654번길 24, 201동 301호 (진월동, 삼익세라믹2차아파트)

• 신고기간 : 2020. 10. 21.~2020. 12. 30.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2. 신진희의 주소

상속한정승인 공시최고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0느단 456호 상속한정승인

청 구 인 오태섭(550323-XXXXXXX)
순천시 수박등2길 21, 101동 706호 (생목동, 현대아파트)

피상속인 망. 곽우순(240216-XXXXXXX)
순천시 수박등2길 21, 101동 706호 (생목동, 현대아파트)

청구인은 피상속인 망. 곽우순(240216-XXXXXXX)의 사망으로 2020. 10. 12.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의 상속한정승인을 결정받음으로 상속재산을 청산하고자 하오니 망 곽우순의 일반채권자 및 유증 받은 자는 2021. 01. 11.까지 그 채권 및 수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목록〉
별지목록과 같음.

한정상속인 곽 우 순
채권신고장소 : 순천시 수박등2길 21, 101동 706호 (생목동, 현대아파트)

2020년 10월 21일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